

① 전문치의제 치협안 최종 확정
10개과 시행... 졸업생 8%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전문치의제 치협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치협안은 ▲시행시기는 법이 통과된 해의 치과대학 본과에 진입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해당연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의 배출정원은 매년 배출되는 국내 치과대학 졸업생의 8%이내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의 전문과가 설치되어 있고 전속전문치과의가 있어야 하며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치과의는 전문과목에 한해 의뢰된 환자를 진료 ▲전문과목 수는 현행 10개 과목을 동시에 시행하는 내용 등이다.

치협은 11월 10일 원주에서 열린 제7회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林炯淳)에서 결정돼 올라온 13개 항목의 전문치과의제도 관계법령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뒤 3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자구수정 등을 통해 치협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치협안은 1차 치과의료기관의 표방금지 등을 위해서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제 법령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수련기간은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를 포함한 10개과 모두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으로 ▲전문치과의로 용어 통일 등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치협안이 최종 결정난 뒤 그동안 수고해온 집행부 임원들과 시행위 위원 등에게 감사사를 표한 뒤 "치과계 숙원인 전문치의제안이 완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회원들이 집행부에 준 사명이기도한 집행부 최종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①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국회 발의
이재정 의원, 25명 의원 서명 받아 제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안이 드디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교육위원회 李在禎(이재정)의원은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13일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의안과로 넘어간 법안은 국회교육위원회로 상정돼 법안으로서의 심의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법안은 또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교육위원회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李在禎(이재정) 의원은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설치법안 발의와 관련 "교육위 의원 중에는 반대 의견은 없는 만큼, 법안 통과에 낙관한다"면서 "이 법안이 무사히 국회본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안은 급박한 올해 정기국회 일정상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전망이지만 이와 관련 李 의원은 "내년 2월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최종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치의신보는 이 법안과 관련 10월 27일자 110호에 법안 전문을 게재한 바 있다.

① 상수도 불소화 62개국 실시
복지부 "미국 러시아 중국서 인정"

2001년 11월 현재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62개국이며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사업을 실시하다 인체 안전성 문제로 중단한 나라는 단 한 국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실상'이라는 대 국민연론 홍보 자료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45년 미국 뉴욕주 및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처음 실시한 지 56년이 지난 2001년 11월 현재, 불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스위스 등 모두 62개국으로 확인됐다.

이중 자연적으로 불소화가 된 지역은 프랑스, 헝가리, 이란, 하이티 등 4개국으로 나타났다.

또 불소화사업을 실시하다 인체의 안전성 문제로 중단한 국가는 불소화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한 국가도 없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사업중단이 아니라 반대론자들의 집요한 방해로 의회에서 불소화 법이 보류돼 시작조차 못한 사례라는 것.

복지부는 불소화사업은 충치예방 효과가 탁월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미국 내 연구보고서만 3700건에 달하며, UN의 국제기구인 WHO에서도 안전성과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탁월하다고 판단, 65년, 75년, 78년 세차례에 걸쳐 불소화 사업 추진을 세계 각국에 권장했으며 지금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보건부 질병관리청 CDC에서는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백신개발 보급과 함께 20세기동안 세계 인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10대 보건 업적 사업으로 선정 발표했다고 덧붙였다.